

# 이재명 “모질게 한 부분 사과”... 文 “끝까지 잘 도와달라

### 50분간 면담...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16일 만

### 상춘재 앞 기념사진 촬영에 총 “가보로 간직”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오전 10시 47분부터 11시 57분까지 5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茶談)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에 이뤄졌다.

상춘재에 먼저 도착한 이 후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다, 문 대통령이 상춘재 계단 아래 녹지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어른이 나오시는 데 내려가야죠”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맞았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악수 후 두 손을 맞잡았다. 문 대통령은 “반갑다”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 후보는 “(상춘재

에) 처음 왔됐다. (초청해주시)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후 상춘재 앞에서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 후보는 “가보로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된 환담에서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날 이낙연 전 대표님 하기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냈고,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 일을 끌어왔다”고 돌이켰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라고 말하며 웃자, 이 후보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후보께서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1:1로 이렇게 범기가 참 쉽지 않은데, 초대해 주셔서 기념감사드립니다”며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친문제인계와 거리가 멀어진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과 공통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 생각과 너무 똑같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아마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시대가 계속 바뀌는,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 때문에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가끔 제가 놀리는 건데, 대통령과 내 생각이 너무 일치해 놀랄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40% 안팎을 나타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주정치 사회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와 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필 전환, 기후위기 대응으로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클 것 같다고 하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농담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게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과 관련해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다. 현재도 이빨이 하나 빠져있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잘해야 하고 극한 직업이라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 면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된 지 1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했고,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선출 2일 만에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을 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노태우 서거’ 엇갈린 시민 반응

### “국가장·국립묘지 안돼” vs “사망” 표현 너무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그의 공과를 반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군인과 대통령을 지내던 시절의 행보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고인의 공을 높이 사는 네티즌들은 대통령 집권 기간 한국의 외교적 지위가 향상됐으며 경제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모든 분야든 과소평가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댓글을 달았다.

언론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망’했다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지인이 돌아가셔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다”며 ‘서거’ 또는 ‘별세’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참여 이력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도 거셌다.

한 네티즌은 “살아서 잘못을 빌었다고는 하나 12·12 쿠데타와 5·18의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절대 국립묘지에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엔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국가 반란죄로 17년형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알아서 모시게 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이 악화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서선욱기자

## 국힘, 경선 여론조사 4지 선다형 확정

### 2시간 회의 끝에 만장일치 의결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사실상 4지 선다형으로 확정했다.

질문 방식은 경선 후보 4인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묻는 단순 4지 선다형이 아니라, 이 후보와 국민 의힘 후보 간 가상 일대일 대결 상황이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홍준표 의원 측이 주장해온 ‘4지 선다형’을 골자로, 질문 방식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말해온 일대일 가상 대결로 채택한 것이다.

선거관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약 2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선거관리위 내 여론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위원은 회의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캠프 의견을 세 번에 걸쳐 다 수렴했다”며 “선거관리위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항 구성 방식을 두고 연일 충돌해온 윤 전 총장 측과 홍 의원 측은 모두 선거관리위가 내놓은 방식

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거 관리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 대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다. 홍 의원 캠프 관계자 역시 “선거관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도 “수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윤 전 총장 측과 홍 의원 측은 각자 다른 방식을 주장해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후보 4인을 각각 이재명 후보와 가상 일대일 대결을 붙여 누구를 지지하는지 네 차례 질문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홍 의원 측은 이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한 차례만 묻는 방식을 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